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12

출판도시문화재단

# I. 사업개요

단체명	출판도시문화재단		
사업명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12		
사업기간	2012. 6. ~ 12.	사업장소	과주출판도시
사업비	총 37,000천원	보조금	30,000천원 (81%)
		자부담	7,000천원 (19%)
		기타	0천원 (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로 구분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과거로부터 ‘한자문화권’으로 구분되며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이어오고 있음.</li> <li>○ 이에 한자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문자적 원형성과 그로부터 유래한 삼국 문자의 시각적,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문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출판 디자인의 방향성을 고민해봄.</li> <li>○ 그리고 종합토론과 리셉션 등을 통해 한중일 출판인들에게 국제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li> </ul>		
사업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연사 추천 및 섭외 진행</li> <li>○ 출판 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 연계 홍보</li> <li>○ 기자간담회 주최, 한·중·일 출판 단체 및 시각디자인 관련 단체 협조 요청</li> </ul>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1(목)            팸투어 : 한국 출판인과의 만남 및 문화공간 투어            친교의 밤 : 국내외 참가자 교류 및 공식 일정 안내, 20명 참석</li> <li>○ 11. 05(금)            심포지엄 진행(10:30~18:00) : 국내외 출판 관계자 및 학생 250명 참석            리셉션(18:00~20:00) : 초청 연사 및 출판 관계자 70명 참석            팸투어 : 출판도시 문화공간 투어</li> </ul>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문자적 원형성과 그로부터 유래한 삼국 문자의 시각적,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출판 디자인의 방향성을 고민해봄.</li> <li>○ 한중일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교류의 시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5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출판 편집자 및 북디자이너는 물론 교육 분야 종사자, 타이포그래피 개발자, 전자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함.</li> <li>○ 행사 이후 리셉션을 통해 중국 칭와대와 일본 타마미술대간 교류 협력, 한국 출판인과 해외 참여 연사들의 교류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됨.</li> <li>○ 일본의 영향력 있는 시각디자인 전문지 &lt;IDEA&gt; 다음 호에 본 행사 관련 э세이가 게재될 예정임.</li> </ul>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3월	- 집행위원장 추대 - 2012년도 개최계획(안) 수립	3월	- 개최 계획 확정 - 재단 제32차 실행이사회에서 박광성 이사를 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함.	
6월	- 심포지엄 2012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심포지엄 2012 기본 기획안 설립	6월	- 기획위원회 구성: 정병규, 박광성 - 2012년 주제 선정 및 기획회의 개최	
7월	- 국내외 연사 및 진행자 섭외	7월	- 국내외 연사 리스트안 작성	
8월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교부금신청서 제출 - 참가자 대상 초청장 발송 - 디자인, 통번역, 장비 대여 등 관련 업체 선정	8월	- 중국 칭화대 시각디자인과의 튀징런 교수, 일본의 스기우라 고헤이, 격월간 시각디자인 전문 잡지 <IDEA>의 무로가 키요노리 편집장 등 해외 기획위원들의 도움으로 현지 연사들에게 초청서신 발송 - 초청연사 확정 및 주제별 심층 논의 - 국고 교부금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개발, 오픈 - 관련 업체 선정 완료	
9월 10월	- 연사 강연 원고 수취 및 번역 -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9월 10월	- 세부행사 기획 및 점검 완료 - 항공, 숙박, 음식 예약 및 점검 - 발표문 취합, 번역 - 기자간담회(10. 22) -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발송	
11월	- 심포지엄 2012 개최	11월	- 세부행사 기획 및 점검 완료 - 의전 및 팸투어 진행 - 심포지엄 개최 - 예산 집행 및 정산	
12월	- 심포지엄 2012 자료집 제작 - 국고 정산서 제출	12월	- 발표 내용 녹취, 자료집 제작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페이지 PDF 서비스 (www.pajubookcity.org)	

▷ 진행경과

일자	행사명	진행 결과	참가
11. 1(목)	팸투어 - 1	- 열린책들 홍지웅 대표, 메이크샵 입주 작가 안지미 & 이부록 등 한국 출판인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2단계 부지, 한길사 책방 등 출판도시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와 출판산업 발전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임.	팸투어: 총 4명 (해외 참가자 및 수행원)
	친교의 밤	- 국내외 참가자 교류 및 공식 일정 안내 - 진행 방법 및 성과 도출 방안 협의	국내외 대표단 및 조직위원회 20명
11.05(금)	심포지엄	- 10:30~11:00 환영인사: 이기웅,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기조강연: 정병규, 정디자인 대표, 한국 - 11:00~12:00 세션 1 한자의 문자적 원형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류동춘,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한국 - 13:30 ~ 14:30 세션 2 한자부터 히라가나까지, 히라가나의 조형성과 가능성에 대해 나가하라 야스히토, 타마미술대 정보디자인학과 교수, 일본 - 14:30 ~ 15:30 세션 3 알파벳과 한자, 그 근본적 문자조형적 차이에 대하여 리더궁, 칭화대 교수, 한국 - 15:30 ~ 16:30 세션 4 동아시아 문자의 원형과 한글 정병규, 정디자인 대표, 한국 - 16:30 ~ 18:00 사회: 박광성, 동아시아책의교류 2012 집행위원장 - 18:00~20:00 리셉션	
	팸투어 - 2	- 출판도시 내 출판사, 인쇄사, 유통센터, 문화공간(미메시스 갤러리, 열화당) 등 출판 현장 방문을 통해 파주출판도시와 한국출판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	팸투어: 총 4명 (해외 참가자 및 수행원)

▷ 세부 프로그램

일자	행사명	진행 결과
11.05(금)	심포지엄	<p><b>세션 1 한자의 문자적 원형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b>                      류동춘,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한국                      : 문자는 ‘이미지’이기 전에 ‘체계’이자 ‘법칙’이다. 이 시간에는 문자의 원형과 변천을 살펴보는 가운데 변화무쌍한 문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본다.</p> <p><b>세션 2 한자부터 히라가나까지, 히라가나의 조형성과 가능성에 대해</b>                      나가하라 야스히토, 타마미술대 정보디자인학과 교수, 일본                      : 한자에서부터 히라가나까지 그 글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문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 출판디자인에서 담아낼 수 있는 문자적 정체성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p> <p><b>세션 3 알파벳과 한자, 그 근본적 문자조형적 차이에 대하여</b>                      리더궁, 청화대 교수, 한국                      : 서양 문자의 근간이 되는 라틴어와 동양 문자의 어머니 끝인 중국 한자는 그 발생과 형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수학하며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문자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문화와 디자인에 대한 시야를 넓혀온 리더궁 교수를 통해 알파벳과 한자의 다름이 무엇인지 알아본다.</p> <p><b>세션 4 동아시아 문자의 원형과 한글</b>                      정병규, 정디자인 대표, 한국                      :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든 이와 반포일을 알 수 있는 ‘만들어진 글자’인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 구별되는 면이 있다. 한국의 출판디자인을 이끌어온 정병규 디자이너는 편집자 출신으로, 한글에 대한 인문학적 감각과 미학적 사고를 함께 녹여낸 현대 한국 북디자인 방면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독자적 세계관을 구현한 한글을 만나보고 그 원형을 파괴하지 않는 출판 디자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p> <p><b>종합토론</b>                      사회: 박광성, 동아시아책의교류 2012 집행위원장                      : 시장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저마다 다르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의 출판인들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문자에 대한 공통된 고민과 그 변형에 대한 이해를 청중들과의 질의질문을 통해 도출해 낸다.</p>

▷ 프로필

일자	구분	프로필
11. 2(금)	세션 1	<p><b>한국&gt; 류동춘, 柳東春, Ryu Dongchoon</b>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중문학과 학사 학위를, 국립대만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함. 서원대, 안양대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음. 한국중국학회, 중국어문학회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음. 주요 논문으로는 「갑골문에 보이는 은대 부정문의 용법 연구」(한국중국언어학회), 「설문해자에 보이는 한대 지배이데올로기」(한국중국언어학회)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lt;중국어학개론&gt;, &lt;그림으로 보는 한자이야기&gt; 등이 있음.</p>
	세션 2	<p><b>일본&gt; 나가하라 야스히토, 永原康史, Nagahara Yasuhito</b>                      타마미술대 정보디자인학과 교수, 그래픽 디자이너. 북디자인, 웹프로젝트, 전시회 아트디렉션 등 매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음. ‘슈에이체 전시(DNP 고탄다 빌딩)’로 DDA 우수상을, ‘혼아미 고에쓰 멀티미디어 전시 프로젝트(필라델피아 미술관)’로 MMCA 멀티미디어그랑프리 전시이벤트부문 최우수상을, ‘戰國博(웹박람회 기후현 파빌리온)’으로 2001년 굿 디자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음. 저서로는 &lt;디자인의 풍경&gt;, &lt;일본어의 디자인&gt;, &lt;디자인·위즈·컴퓨터&gt; 등이 있음.</p>
	세션 3	<p><b>중국&gt; 리더궁, 李德庚, Li Degeng</b>                      칭화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디자이너. 중앙공예미술학원(현 칭화대)에서 학사 학위를, 북경복장학원과 독일 라이프치히시각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함. 북경 금일미술관에서 학술감독과 OMD 현대디자인사무소 총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음. 현대 디자인 연구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써오며 2008년 ‘사회 에너지 - 네덜란드와 현대 디자인 교류 순회전’, 2011년 ‘제1회 북경국제디자인 3년’ 등 다수의 전시회를 기획·진행함. &lt;FRAME&gt;, &lt;MARK&gt;, &lt;디자인 관리&gt; 등의 잡지 중문판 편집디자인 총감독을 역임함. 저서로는 &lt;유럽디자인의 현재&gt;, &lt;오늘날 디자인 교류&gt; 등이 있음.</p>
	세션 4	<p><b>한국&gt; 정병규, 鄭丙圭, Chung Byoungkyoo</b>                      1946년 출생. 북디자이너. 정디자인 대표.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장 역임. 서울출판디자이너클럽(SPC) 회원. 고려대학교 불문과 졸업 후 민음사 편집부장, 흥성사 주간을 거쳐 1979년 디자이너로 독립, 현대 한국 북디자인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올림픽 전문위원, 아시안게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작품집으로 &lt;정병규 북디자인&gt;이 있다.</p>

▷ 참가자 분석

(단위 : 퍼센트)

구분	출판	학생 및 교육자	기타	합계
퍼센트	40	37	23	100

-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 참관 위주였던 2010년과 달리 현직 출판인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2010년 학생참가자 50% 이상). 편집 기획 및 디자인 프로그램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타 심포지엄 및 특강과는 차별화되는 콘텐츠로 출판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 95%의 참가자가 2개 이상의 세션에 참석하였으며, 4개 이상의 세션에 참여한 참가자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심포지엄 진행 및 발표 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5점 척도 결과 평균 3.9(만족)로 높게 나타남.
- \* 심포지엄 정보를 접한 방법으로는 ‘주변인의 추천’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동종 업계에 있는 지인들의 추천 및 권유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차기년에는 출판모임이나 교육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에 보다 집중할 계획임.

### Ⅲ. 사업추진성과

#### ○ 종합적 성과

##### 1. 한중일 3국의 젊은 출판인들, 문자로 통하다

- 한자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중일 3국의 출판인들이 모여 출판문화의 근간인 문자의 원형과 현대 문자사용의 여러 갈래에 대해 논함. 역사의 뿌리를 알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듯, 문자의 원형을 깨달으면 변별력을 갖춘 디자인적 변형이 가능할 것임.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짐. 특히 종합토론과 리셉션으로 이어진 교류 시간에는 한중일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함께 거론됨. 이러한 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은 한국 출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2.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 도출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국의 리더공이 교수로 재직 중인 칭화대 시각디자인과와 일본 나가하라 야스히토가 몸담고 있는 타마미술대 정보디자인과간에 구체적인 교류 일정이 협의됨. 한국의 류동춘 교수 또한 단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면으로 논의함. 동아시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출판인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교류 발전 모델이 기대됨.

##### 3. 동아시아 문자, 그 중심에서 한국과 한글을 홍보하다

- 동아시아 문자의 원형을 논할 때 무엇보다 그 기원으로 거론된 것은 동아시아 문자라 일컬어지는 ‘한문’이었음. 그러나 심포지엄을 통해 이번 주제를 발의하고 이끌어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글의 조형적·의미적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각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둠. 한국의 출판문화와 한글을 홍보함으로써 한국이 동아시아 출판문화의 허브로 인식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IV. 자체평가

### ○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1.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다 큰 범주 안에서 출판문화를 다루고자 ‘문자의 원형’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함. 이에 출판계는 물론 타이포그래피 관계자, 타 분야 디자인 종사자, 학계에서도 참여함. 동아시아간 교류는 물론 출판과 다양한 인접 분야와의 교류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 심포지엄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음.
2. 쉬는 시간과 종합토론, 그리고 리셉션 장소까지 초청 연사 및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진행됨.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출판인 및 타 업계 종사자들인 만큼 이러한 정보 교류는 새로운 양질의 책 만들기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3. 출판도시 팸투어와 다양한 교류의 시간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서 초청한 연사들에게 출판도시와 한국 출판을 홍보함. 특히 출판도시 팸투어의 경우 단순한 시설 탐방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출판인과의 대화, 입주 작가와의 만남 등을 배치, 짧은 일정에도 밀도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데 주력함.
4. 중국과 일본 출판계에서 영향력 있는 이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각국의 출판계 정보를 얻고 주제별 연사를 추천 받을 수 있었음.
5. 심포지엄에서 발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영문 자료집을 제작, 관련 단체 및 출판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e-book 형태로 편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함. 향후 동아시아 출판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확인,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거라 기대함.

### ○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했던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1. 올해 심포지엄을 통해 맺어진 중국 청화대와 일본 타마대의 교류 프로그램은 이 행사가 지향해야 하는 점과 맞닿은 부분이 있음. 이러한 구체적인 교류 및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 교류는 물론,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숙박 워크숍이나 소규모 간담회 등 프로그램을 다

각화해야 할 것임.

2. 행사 종료 시간과 퇴근시간이 겹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참가자들이 혼선을 빚음. 출판도시에는 지하철 및 전철 등 많은 인력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기에 참가자들의 체감 불편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음. 이에 향후에는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1.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디자인 관련된 연구, 혹은 논문자료의 수는 기획과 마케팅 등 출판의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미비한 수준임. 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북디자인의 영향력에 비해 그에 대한 인식 및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심포지엄을 기초로 다양한 모델을 발전시켜 한국 북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북디자인 사례 연구 및 통합된 정보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 심포지엄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2014년은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임. 이에 ‘동아시아 출판의 미래’라는 큰 주제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해보았던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 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임. 무엇보다 북디자인이 그 중심에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대로 된 전시 및 자료집 제작을 위한 별도 예산 책정을 요청드립니다.
-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한국에서는 현재 출판과 출판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함.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비가 별도 책정되어있지 않은 본 심포지엄의 경우에도 관련 사례를 취합, 공유하는 수준이나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도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기초자료 연구를 위하여 연구비를 별도 책정하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개발·연구하고,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몇 배가 될 것이라 사료됨.

- 재단에서는 매년 심포지엄을 영상과 간략한 녹취록 형태로 아카이빙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어 번역 영상 자막 제작, 둘째, 서점에서 유통되는 출판물 제작이 필요함. 이는 출판인들에게는 양질의 출판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일반 독자에게는 출판도시의 역할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임. 또한 관련 내용을 한영 합본으로 구성, 해외에 있는 출판 관계자에게도 출판도시와 심포지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출판물 제작비의 일부를 이번 행사의 후원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는 앞으로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더욱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심포지엄과 포럼의 결과를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더 나아가 이를 모델로 국내외 출판 관련 다양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소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통합 정보지원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 VI.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발표문	현장 배포용 발표 요약본	1	
2	홍보물 모음	포스터, 리플렛, 보도자료 등	1	
		사진 DVD	1	
		행사 기록 사진 모음	1	
3	자료집	발표 자료집	1	